

사설

문화재 복원 신중 기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재를 보수 또는 복원하고 있다. 경주시는 2000년 12월부터 15개월에 걸쳐 6억4천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경주 남산에 있는 4개의 폐탑을 복원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포석계곡 부흥사 서남쪽 능비봉 5층석탑은 1억 5천여 만원이 들어 복원됐는데도 탑신의 조화가 안맞아 이질감을 주고 있으며, 비파골 3층석탑은 축대가 지나치게 높아 탑의 조망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복원된 탑은 기반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새로 만든 것이고 옛 탑재는 그 주변에 나뒹굴고 있어 뜻있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경주시 예술과는 논란이 일자 '폐탑의 복원사업은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현장지도로 거쳐 진행되어 기술적 예술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며 또 복원에 앞서 실시한 발굴결과

원래의 부재가 많이 깨지고 없어져 완전한 원형복원이 어려웠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았다면 발굴을 마친 뒤 수습된 부재를 살펴 복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부실 복원은 이번뿐이 아니다. 국보인 유명한 감은사지 동탑도 5년 전에 해체 복원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몸체가 내려앉았다고 한다.

문화재의 보수나 복원을 실시함에 있어 그 문화재가 지닌 원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신라인들이 세운 탑은 세찬 비바람에 견디면서도 천이백여 년을 굳건하게 서 있어 왔는데 우리 시대에 고쳐 쌓은 탑은 5년도 못돼 몸체가 내려앉는다면 우리는 선조들에게도 후손에게도 풀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어찌나

2월 28일 중앙승가대학교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다. 추가 모집까지 하였지만 전체 120명 정원에 겨우 70여 명이 입학했으며, 역경학과는 단 2명이 지원했는데 타종단 비구라고 한다.

역경학은 종단의 교육·역경·포교의 3대 사업 중의 하나로서 그 중대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자가 극소하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역경학과 개설 당시부터 계속 4-5년을 30명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치유방안이 진작에 나와야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경학과와 이번 졸업생 11명 중 1명도 역경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이대로는 생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역경이란 쉬운 영역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분야임이 틀림없다. 불교경론의 번역에 필수적인 언어, 즉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한문은 물론 국문학에도 밝은 식견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차원에서 역경사를 양성한 적은 거의 없었다. 역경이 불교학의 근간이자, 불교발전의 요체임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0여년간 조계종단은 역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조차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역경에 소질있는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전문기관과 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임을 조계종단은 명심하기 바란다.

역경인력 종단차원 양성 시급

중앙승가대 역경과 신입생 2명... 폐과 위기

올 졸업생 11명 전공관련 진로선택 못해

불교사학·유아교육·종무행정으로 대체 거론

중앙승가대 역경학과가 폐과위기에 놓이면서 학과 재편 및 역경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승가대학교 2002학년도 입학식이 2월28일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은 불교학과 28명, 사회복지학과 28명, 포교사회학과 9명, 역경학과 2명, 편입생 9명 등 모두 76명이다.

조계종단이 도제양성, 포교, 역경을 3대 지표로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분야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승가대는 역경학과 올해 신입생이 2명에 그쳐 교육부 규정상 학과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정원(5명)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학과 재편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학부과정으로는 다소 어렵고, 이같은 이유로 신입생이 해마다 5~10명 수준을 넘지 못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승가대 안팎에서는 학부과정으로는 역경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어렵고, 따라서 졸업생 해도 전공을 살린 진로를 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다른 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1명의 올해 역경학과 졸업생중 역경과 관련한

곳은 전문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역경 전문인력 배출과는 거리가 있고, 역경을 연구하는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도 지난해 문을 닫아 사실상 역경인력을 양성하는 종단의 교육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역경학과 존폐문제는 사실상 종단의 역경교육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학과장 해남스님(조계종 역경위원장)은 "불전국역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조계종 교육인 고명석 과장은 "전문교육기관이나 연구소를 설립해 체계적인 연구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오)는 2월22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를 열고 본말사 주지 연수 이수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본말사 주지는 4년 임기동안 매년 1회씩 모두 네 차례 교육원이 마련한 주지연수 받아야 하며, 3만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경고를 받는 것과 동시에 교육을 잘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2년 이하 이 수자의 재임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65세 이상의 스님은 주요 소임자의 대리 참석이 인정된다.

한명우 기자

직능직 종회의원 전문성 강화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 비구로

선관위 시행규칙 공포

5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 비구로 한해 직능직 종회의원 자격이 부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 기준 및 선출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 기준을 해당 직능직 분야에서 5년 이상 '선원' 분야는 15학안거 이상 전문직으로 종사한 비구로 한정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 기준 및 선출기간, 선출방법 등을 미

리 공고하고,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3일전에 해당 분야 입후보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하는 직능직대표선출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조계종 직능직 종회의원은 울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행정, 법제분야에서 각 1명씩 선출된다. 김원우 기자

템플스테이 사찰 6곳 추가

태고·천태·진각종...문광부에 예산신청

지난 2월 6일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25개 조계종 사찰 외에 태고종과 천태종 등 4개 종단의 6개 사찰이 템플스테이 사찰로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사찰은 태고종의 신촌 봉원사와 제주 광명사, 천태종의 서울 관문사와 부산 삼광사, 진각종의 하월곡동 탑주심인당, 관음종의 서울 묘각사 등이다.

조계종은 2월 28일 한국불교 전통문화체험 사찰에 대한 예산 지원 협조를 문화관광부에 의뢰하면서, 이들 31개 사찰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찰에 체류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화장실과 샤워실 등 개선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이번 졸업식으로 배출된 학원은 통도사 15명, 쌍계사 12명, 송광사 9명, 범어사 6명, 해인사 5명, 불국사 5명, 수덕사 2명, 백양사 1명 등 모두 55명이다. 한편 직지사 강원은 3월14일 졸업식을 갖는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자원봉사로 꽃피는 '불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병규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셜: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이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제기는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부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2-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 (02) 85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